

2019학년도 하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

1. 기본정보

파견국가	캐나다	파견도시	밴쿠버
파견대학	Langara College	기간	2019. 08. 05. ~ 08. 25.

2. 파견대학, 수업, 필드트립 등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대학 위치, 규모 및 시설,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. 대학 위치는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과 가까워 통학이나 여행을 계획했을 때, 이동하기 편리했다.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있을 것은 다 있고, 시설도 좋은 편이다. 웬만한 것들이 자동화 되어있고, 청결한 편이다. 다양한 인종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 인종차별적 분위기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.
수업	수업내용, 수업방법, 강사, 과제,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. 수업은 영어 표현과 환경, 글로벌 시티즌십에 대해 진행됐다. 그러나 결국에 맥락은 영어 말하기 연습으로 한 가지로 통했다. 수업방법은 주로 말하기로 진행되었다. 나를 맡으셨던 Adam선생님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일을 하시는 분이 라 학생들과의 소통에 있어 능통하셨고, 타 문화에 대한 열린 사고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친근하게 느껴졌다. 과제는 현장체험과 관련하여 학습지를 채워 오기라던가, 영어 저널 쓰기 등 부담감이 없는 과제들이 주어져, 수업시간 이후에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기에 용이했다. 반 배정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내가 배정된 반 친구들이 모두 착하고 서로 잘 뽐치는 반이라 기억이 좋게 마무리됐다. 하지만 레벨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 내에서 영어 말하기나 이해 능력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날 때가 가끔 있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고 생각한다.

필드트립	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(필드트립)에 대해 서술해주세요. - Activity 종류, 내용, 준비물, 추가비용 여부 등 마련된 Activity들은 모두 너무 좋았다. 그런데 Vancouver Museum에서 모든 전시 자료를 읽고 빈칸이나 질문을 채워오는 과제가 주어졌었는데, 미술관에 가면 여유롭게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선호하는 나에게는 이 과제가 전시를 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다. 이것 빼고는 Discover Vancouver라던가 Kayaking이라던가 Aquarium, Whistler Trip은 다 좋았다. 다 밴쿠버를 대표하는 중요한 장소나 활동들이었고, 학생들에게 스스로 찾아보지 않아도 밴쿠버라는 도시를 충분히 즐길 수 있게끔 활동을 설계하신 것이 눈에 보였다. 고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최고였다.
------	--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현지 기후 및 유의점 여름이라 민소매, 반팔, 반바지를 주로 챙겨갔는데 생각보다 추웠다. 그래서 어느 날은 기모 후드 티를 입어야 할 때도 있었다. 현지 선생님들은 이런 날씨가 이상기후라고 하셨지만 짐을 쌀 때, 긴 팔, 긴 바지, 겹 옷도 꼭 섞어 가져가길 추천하며, 불가피한 경우 옷을 사서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.
안전	현지 안전 상황 매우 안전하다. 인종차별을 한 번도 노골적으로 느껴본 적이 없고, Hastings라고 Homeless들이 군집해있는 곳이 있긴 한데, 거기만 피하면 위협적인 사람들도 없다. 밤 늦게 다니는 건 정말 사람들도 없고 어두컴컴해서 무섭긴 하지만, 정말 아무도 없어서 필자는 잘 다녔다.

숙소	홈스테이 시설, 분위기, 규칙,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시설 너무 좋았고 있을 건 다 있었다. 행복한 가정에 배정되어 행복했고 규칙도 늦을 때 연락하기, 집에 돌아온 것 알리기 빼고는 없어서 나는 지내는 내내 편했다. 다만, 집 아들 친구와 관련된 해프닝이 한 번 있었는데, 외국은 방 외에는 다른 활동영역에 타인의 출입이 성별의 관계없이 허용되는 모양이었다. 방 안에 있을 때 빼고는 돌아다닐 때 행동이나 복장에 주의해야한다.
식사	학교식당 () 외부식당 (O) 기타 ()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,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점심은 홈스테이 가정에서 싸주는 거 먹었고, 저녁은 여행하면서 맛 집 찾아서 주로 사먹었다. 확실히 간이 매우 센 곳도 많았다. 그러나 대부분 다 맛있었다. 식비가 한국의 2배가량 나오므로 이를 염두하고 외식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.
교통	시내교통 관련 딱히 불편함은 못 느꼈다. 뭐든 신창행 1호선 보단 훨씬 낫다. 가끔 밤에 연착될 때는 있는데 대부분 10분 내외이고, 한 곳을 가도 다양한 방법으로 갈 수 있어서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다. 주말에는 대중교통이 차 간격이 1시간이므로 집에 돌아갈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늦지 않게 들어갈 수 있다.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 1,000,000 단위:원

항목	비용(원)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쇼핑	550,000	개인물품, 기념품, 생필품 등
식비	250,000	외식
입장료	150,000	박물관, 미술관, 놀이공원
기타	50,000	
합계	1,000,000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외식을 할 것이라면 식비가 우리나라의 2배정도라는 것을 염두 해서 예산을 짜야 한다.

여름 날씨가 우리나라 날씨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. 대부분 늦봄-초여름 날씨이고 좀 더 추울 때도 있다. 새벽에는 추워서 깰 정도로 서늘하다.

텀블러를 챙겨오는 것이 좋다. 사먹는 물은 생각보다 비싸다. 그러나 정수시설이 웬만한 공공장소에 잘 갖추어져 있으니, 경제적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.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3주간 후회 없이 보내고 싶다면 동선을 고려하여 여행 계획을 꼭 세우고 가시길 바랍니다.

첫 주를 쇼핑으로만 보냈더니 나중에 허무했던 기억이 납니다.

날씨, 자연경관, 공기가 너무 좋고 살기에 좋은 도시라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

저는 평소 아토피를 앓고 있었는데, 여기 날씨와 환경 때문에 온지 3일만에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.

단기 어학연수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신다면,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꼭 이곳 저곳 열심히 다녀보시길 바랍니다.

몸은 고될 수 있지만 그만큼 좋은 경험,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.

저는 이번 여행이 인생 첫 해외여행 경험이었는데, 이번 기회로 더 넓고 다양한 세상을 구경해 보고 싶다는 생각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.

따라서, 제 손으로 직접 경비를 모아 방학 때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다시 한 번 떠날 것을 결심했습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 필수)

	
Kayaking	Discover Vancouver 1
	
Discover Vancouver 2	Victoria Island
	
Whistler Trip	Langara College